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반도지역에 조성된 엄중한 정치군사정세에 대처하여 군대의 전쟁준비를 보다 철저히 갖추기 위한 중대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가 8월 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과 전선군단 및 중요임무담당부대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는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정세악화의 주범들의 군사적준동을 분석하고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대응안들을 결정하였으며 유사시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억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동시다발적인 군사적공세를 취하기 위한 확고한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는데 대한 문제들이 중요의제로 토의되었다.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군사적대결행위가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현정세는 우리 군대의 보다 주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압도적인 전쟁대응의지와 철저하고 완전한 군사적준비태세를 필요로 제기하고있다.

회의에서는 유사시 군사전략전술적 및 군사력의 확고한 우세로써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 소멸하기 위한 강화된 전선작전집단지휘성과 작전임무를 심의하였으며 전선부대들의 작전수행능력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보다 구체화된 작전계획을 수립함에 관한 군사적대책들이 진지하게 연구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

결과에 기초하여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확대변화된 작전영역과 작전계획에 따르는 중요군사행동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새로운 전략적임무에 따르는 실천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상시적인 작전준비태세를 만단으로 갖추는데서 나서는 군사실무적문제들과 관련결정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중대한 군사적대책에 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현 조선반도지역정세를 심도있게 개괄분석하시고 군대의 전쟁준비

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칠데 대한 강령적결론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적의 군사력 사용을 사전에 제압하며 전쟁발생시 적의 각이한 형태의 공격행동을 일제히 소멸하기 위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기도실현에서 기본은 강한 군대가 준비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쟁억제력사명수행의 위력한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보유하는것과 함께 부대들에 기동적으로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배비된 신형무장장비들을 최대의 전투적효과를 발휘

할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천훈련들을 적극 벌이며 항상 동원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데서 군수공장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대화되어가는 군의 작전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장비들의 대량생산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무장장비생산능력조성과 생산계획목표를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박수일대장을 총참모장직에서 해임하고 리영길차수를 새로 임명하였으며 주요직제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또한 공화국강건 75돐경축 민간무력열병식준비를 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화국무력악에 나서는 일련의 중요과업들이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는 현대전에서 조선인민군이 확고한 전략전술적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압승할수 있는 실천적인 강령들을 제시함으로써 전쟁승리의 군사적담보를 튼튼히 마련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경방사포탄생산공장을 비롯한 중요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의 군수공업정책의 핵심목표수행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초대형대구경방사포탄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이 최근에 이룩한 기술 및 생산공정현대화정형과 현행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가 포치한 생산공정현대화전망목표와 지난해 11월 9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대구경방사포탄 계열생산을 위한 능력조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초정밀대구경방사포탄의 계열생산능력조성을 위한 생산공정전반에 대대적으로 새로운 설비들과 측정장치들을 도입하여 정밀가공능력을 제고하고 자동화를 실현하였으며 로동환경조건을 비약적으로 일신시킨데 대하여 당정책의 정확한 집행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여기에서도 수평강력선압기를 무조건 개발도입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단일추진관을 선할수 있는 능력을 조성한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높여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데서 관건적인 작용을 하는 대단히 자부할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여러가지 측정장치들을 도입함으로써 포탄품질관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고 추진관의 열처리시간을 단축하는것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대책을 세운것이 매우 기쁘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투부생산공정과 안정타부생산공정, 발사관제작의 제반, 조립공정에서 제품의 정밀성을 보장하면서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자동화,



정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현대적인 측정수단들을 도입하는 등 여러가지 과학기술대책들을 수립한데 대하여서도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생산하기 위한 능력조성사업 등 국방경제사업의 중요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해나가는데서 공장이 담당하고있는 중요한 책임과 임무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우리 국방공업의 발전성과 현대성을 상징하는 본보기공장앞에 나서는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수행을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 군검수원들이 무한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심장을 뚫으며 군수생산으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해온 우리 국방공업의 전통적이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굳건히 이어 당중앙이 제시한 웅대한 국방발전전략의 성과적실행에 충절기, 총매진하여 결사분투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현대화에서 중요한 몫을 맡아하게 될

새로운 약전기구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축공사진행정형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청취하시고 중요지시를 포치하시였으며 현대화된 약전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서의 생산공정배치와 능력문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우리 나라 군수공업의 선봉에 선 핵심공장답게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계열의 저격무기생산실태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변화된 전쟁양상에 맞게 인민군대 전선부대들과 유사시적후에서 무장투쟁을 하게 될 부대들이 휴대할 저격무기를 현대화하는것은 전쟁준비에서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위력한 우리식 저격무기생산과 발전방향에 대한 당중앙의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량화와 집중성보장은 저격무기개발과 생산의 기본핵심지표라고 하시면서 우리 군인들의 체질적특성과 전투적성능을 만족시킬수 있게

새로운 형식, 새로운 구경의 저격무기들을 만들어낼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전망적인 생산목표와 그를 위한 생산공정현대화방향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략순항미사일과 무인공격기 발동기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중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최근 우리가 새로 개발한 전략무기들을 기술적으로 보다 세련시키고 계열생산하는데서 공장이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고 하시면서 무기체계구성에서 핵심요소로 되는 발동기의 성능과 믿음성을 부단히 제고하고 생산능력을 급격히 확대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발동기제작에 필요한 각종 자재보장대책을 확고히 앞세워 발동기생산에서의 속도와 질과 량을 다같이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생산공정들을 더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 과학화, 정밀화하며 공장의 로동생산조건과 문명한 생활환경을 계속 일신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최대로 폭발시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첨단수준의 각종 전략무기발동기들을 팡팡 생산함으로써 공장이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개발혁명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요전략무기대차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이 제시한 전략미사일발사대차 당면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장에서 진행한 현재까지의 계획수행정형과 전망적인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의 군사전략실현에서 공장이 맡고있는 중추적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공장에서 대형발사대차생산을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최중대사업으로

정한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생산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생산공정현대화와 생산능력제고에 힘을 넣어 발사대차생산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공업발전의 기본열쇠는 군수로동계급의 정진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최중대사업에서 군수생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있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한몸으로 체득하고 투철한 애국심과 투쟁정신을 발휘하도록 적극 떠밀어 주며 생활조건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이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신임과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중요군수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국가방위력강화의 전초선을 지켜선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시금 자각하고 더욱 용기백배 헌신분투함으로써 우리 군대의 전쟁준비와 주체적최첨단전략무기개발생산에서의 비약적성공과 조선로동당의 혁명위업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조국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을 때면 78년 전 모란봉공설운동장(당시)에서 열렸던 평양시화영군중대회에서 민족의 영웅을 맞이한 끝없는 감격과 기쁨속에 각계층 인민이 터쳐던 만세의 환호성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주제34(1945)년 10월 14일 평양의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공설운동장은 사람바다를 이루고 운동장밖의 나무꼭대기들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있었는데 그때 최승태와 울밑대쪽에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연단에 나서시자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는 군중들의 합성과 환호성은 하늘땅을 진잡하였다.
당시의 《평양민보》는 그날의 정경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였다.
《평양의 력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찌기 이와 같기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는가? 이와 같이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는가?...

... 특히 대회를 력사적으로 뜻깊게 하고 회중을 감동케 한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낳은 영웅 김일성장군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에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것이다. ... 조선노동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김일성장군께서 그 림름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는 울음을 흘렸다.》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의 조국개선이였다.
암흑에서 빛을 그리듯,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갈망하듯 그리도 애라게 기다리고 바라던 조국해방을 맞은 때로부터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조국개선을 안타깝게 고대하 우리 겨레였다.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지리천대만고 멸시받던 민족의 운명에서 해방시켜주시려고 항일의 불바다만리, 혈전만리를 헤치신분이 바로 민족의 장한 아들이고 만고절세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조국해방은 우리 겨레의 피눈물진 숙원이고 간절한 열망이였다.

《시일야방성대곡》의 처절한 곡성과 함께 하루아침에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조선민족.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자 려갈들에게 간절한 청원도 하고 백의민족모두가 떨쳐나서 3.1인민봉기도, 6.10만세시위도 벌리였다. 그런가 하면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등박문에게 분노의 총탄도 날리였고 침략군의 우두머리들을 향해 항거의 수류탄도 던져보았다. 또 만주와 연해주의 넓은 들뜰에서 반일의병투쟁도 벌려보았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실패와 처절한 죽음으로 막을 내리였다.

조선독립은 정녕 이룰수 없는寂寞한 말인가. 겨레가 독립에 대한 한가닥의 희망마저 잃어갈 때 간악무도한 일제는 더욱 악착스럽게 조선민족의 명줄을 조이었다. 《동조동군》, 《내선일제》를

떠들면서 조선사람들에게 일본어로 《죽어》로 사용될것을 강요하고 《참새개명》으로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마저 없애버리려 하였으며 3천리의 주요산맥과 명승지마다의 《지혈》물에 쏘는 류황과 기름을 쏟아붓고 쇠발목을 박아 넣어 우리 민족의 정기를 없애고 나아가서 조선민족자체를 영원히 말살해버리려고 발악하였다.

이러한 때 백두산에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총성이 높이 울리였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나라찾을 큰뜻을 품고서 고향 만경대를 떠나 준엄한 혁명의 길에 오른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21(1932)년 4월 25일 안도현에서 항일무장대조를 조직하시고 일제와의 전쟁을 선포하시였다.

그때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의 나라찾는 싸움의 총성이 높이 울리였고 우리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조국해방의 구성으로 우리러며 따랐다.
인류력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이 유격전의 방법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침략군과 맞서 백전백승한 배를 알지 못하고있다.

항일의 전구들에 펼쳐졌던 그이의 지략은 천변만화하는 백전백승의 지략이였다.
단숨에 백리를 달려 적들을 혼란시키기도 하고 멀리 이동하는척하다가 적들의 코밑에 슬쩍 돌아오기도 하며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가 하면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치기도 하는 전법, 적들의 한가운데 들어가 한바탕 휘저어놓고는 슬쩍 빠져나와 제놈들끼리 실컷 맞붙게도 하고 적이 대무력으로 달려들면 분산하여 치고 적이 분산하여 달려들면 집중하여 치는 도저히 가늠할수 없고

종잡할수 없게 변화무쌍하고 신출귀몰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기묘한 전법과 전술은 일제침략자들을 무서운 죽음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하기에 일제의 《도벌대》 대장을 하던자는 후날 이렇게 실로 하였다.

《나는 지금까지도 알수 없는 것이 눈우에 력력히 있던 발자국들이 돌연히 없어진것이라든가, 강을 건너간것이 뻔한 사실인데 강 건너 언덕에는 발자취 하나 없는 그야말로 하늘로 솟았는지, 땅속에 잤는지 알수 없는 신출귀몰하는 전법이다. 그것은 일제의 한가운데 들어가 한바탕 휘저어놓고는 슬쩍 빠져나와 제놈들끼리 실컷 맞붙게도 하고 적이 대무력으로 달려들면 분산하여 치고 적이 분산하여 달려들면 집중하여 치는 도저히 가늠할수 없고

《김일성장군님은 축지법을 비롯 한 번신술, 장신술, 분신술을 마음대로 쓰신다.》, 《김일성장군님은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나무 가지로 작탄을 만드시고 종이 한장을 띄우시고 물우를 건너다니시며 원수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신다.》
《나는 지금까지도 알수 없는 것이 눈우에 력력히 있던 발자국들이 돌연히 없어진것이라든가, 강을 건너간것이 뻔한 사실인데 강 건너 언덕에는 발자취 하나 없는 그야말로 하늘로 솟았는지, 땅속에 잤는지 알수 없는 신출귀몰하는 전법이다. 그것은 일제의 한가운데 들어가 한바탕 휘저어놓고는 슬쩍 빠져나와 제놈들끼리 실컷 맞붙게도 하고 적이 대무력으로 달려들면 분산하여 치고 적이 분산하여 달려들면 집중하여 치는 도저히 가늠할수 없고

그 나날에 진행된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주제26(1937)년 6월 4일, 일제가 국경경비요충지로 중시하며 삼엄한 경계망을 퍼던 보천보의 밤 하늘에는 화광이 충천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불의적이고 드세찬 공격앞에 일제통치기관들이 순식간에 점령되고 불길기 치솟아올랐던것이다.
그 불길은 조선민족은 죽지 않

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알려준 력사의 불길이었다.

항일혁명의 나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어 일제와의 전진항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민족을 조국해방의 기치밑에 튼튼히 결속하시기 위해 주제25(1936)년 5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국내는 물론 만주의 조선인거주지들과 일본본토에까지 조직을 급속히 확대하여 조국해방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민족의 주체적임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안아오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34(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에 조국해방작전을 개시할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온 겨레를 일제와의 판거리결전에 불려일으키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노도와 같은 진격에 보조를 맞추어 국내의 각지에서는 항쟁조직들이 무장폭동들을 일으키고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습격하였다.

정녕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 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은인이다.
하기에 해방의 감격이 차넘치던 그 나날들에 온 겨레는 목청껏 《김일성장군 만세!》를 외쳤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인민의 마음은 영생불멸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되어 삼천리강산에 울려 퍼지였다.

장백산 즐기즐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달밭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오늘도 공화국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그이께서 세워주신 자주의 나라, 인민의 나라를 끝없이 빛내여갈 애국의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매진하고있다.
박 금 순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조국해방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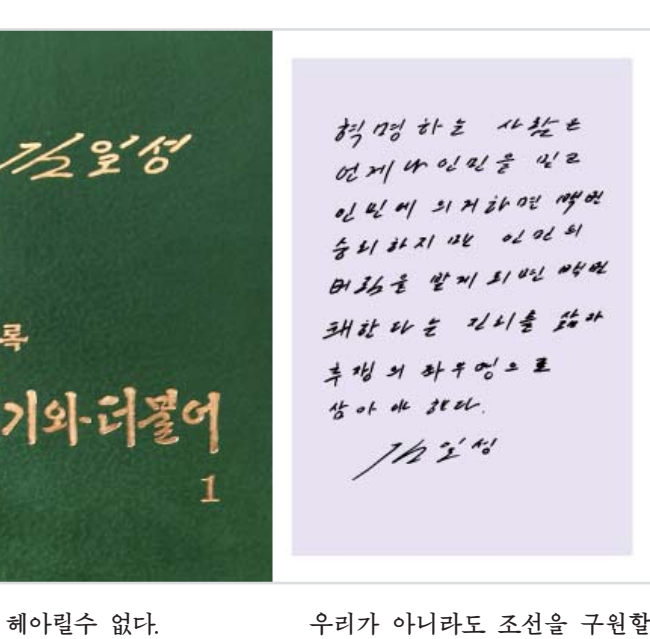
항일의 피어린 20성상

우리 겨레의 운명을 구원한 8.15조국해방은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장장 20성상에 걸친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에 의해 마련된 민족사적사건이었다.
설한풍이 몰아치는 백두판야에서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무적항군》이라 불내는 일제의 10만대군과 피어린 혈전을 벌리시며 수많은 사신의 고비들을 피로써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장백산 즐기즐기 피어린 자옥》이라는 노래의 구절과도 같이 우리는 그때 가는 곳마다에서 피를

흘리었다고, 우리앞에 놓인 한 치한치를 피로써 헤쳐나갔다고 뜨겁게 회억하시였다.
얼마나 피어린 길이었는가. 얼마나 험준은 멀고 험한 혁명의 길이었는가.
적들의 끈질긴 추격과 치렬한 전투, 뼈속까지 얼어드는 혹심한 추위, 겹쳐드는 식량난,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전우들의 가슴아픈 희생...
결음걸음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절대로 물러설수 없는 길이었다. 그것은 바로 이 길이 조국의 운명, 도란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혁명가로서, 인간으로

회고록과 더불어 빛나는 절세위인의 거룩한 한평생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민족과 더불어 회포에락을 나누시며 투쟁의 길을 헤쳐오신 절세의 위인의 영웅서사시적생애와 업적이 집대성된 불멸의 명저이다.
세상에는 삶의 진리와 좌우명에 대하여 쓴 도서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과 같은 고귀한 위인전서, 참된 삶의 교과서는 없다.
자신의 한생을 결코 남달리 특별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의 머릿글에 남기신 명제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불멸의 글말.
한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강 그리 바치시였지만 그 불멸의 로정을 서술한 회고록마저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되새겨보면 위대한 수령님처럼 한평생 그렇듯 엄숙한 시련을 헤쳐온 위인은 없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력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령도자도 없다.
일찌기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혁명의 길에 나선신 때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쏟아부으신 심혈과 헌신의 력사는 그 무엇으



그러시여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에서 천만민은, 아니 인류는 혁명가의 도덕의리는 어떠한 경지에 올라야 하는가를 삶의 교과서로 받아안는다.
회고록의 매 권, 매 장, 매 절은 그야말로 이런 친금같은 명제들과 동지애의 전설들이 가득히 실려있고 그 언제 펼쳐들어도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의 갈피들을 펼치며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것은 바로 그속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인간으로서 이겨내기 힘든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자욱이 가슴뜨겁게 안겨오기때문이다.
참으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민족과 후대들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바치시며 마련해주신 고귀한 유산이며 수령님의 거룩한 업적과 위인적품도를 깊이 체득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총서이다.
민사들이 공감하는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있는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은 지금 현시대 인간들의 필독서로 되어 온 민족과 세계수익만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다.
만고절세의 위인의 영웅서사시적한생이 집대성되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천만민은, 아니 인류는 혁명가의 도덕의리는 어떠한 경지에 올라야 하는가를 삶의 교과서로 영원한 생명력을 펼칠것이다.
김 춘 원

민족의 구세주

뜻깊은 조국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위대한 김일성장군에 대한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과 끝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설레이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영영 잃을뻔 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된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비극이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창조하여온 우리 민족은 비참한 식민지노예가 되어 치욕과 불행속에 몸부림쳤고 삼천리강

토는 일제의 군화발에 짓이겨졌다.
겨레의 운명이 칠성판에 울랐던 민족수난의 그 시절까지가던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의리로 조직령도하시으로써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이 땅에 인민의 새세상을 펼쳐주시였다.
력사무대에서 사라질뻔 하였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물같은 그 은덕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민족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예와 행복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 땅에서 《조국해방 만세!》의 합성이 울린 때로부터 어느덧 78년이 되어온다. 하지만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잊지 못하며 그이를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실 우리 겨레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더 불타고있다.
전도교정우당 중앙위원회 심영철

령장의 슬하에서 강군의 맹장들이 자란다

얼마전 성대하게 진행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에서 첫 열병대로가 들고나가는 초상사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류달랐다.

공화국의 행로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7.27의 기적을 안아온 전승세대의 전열에 선 것이 바로 항일전쟁이 낳은 맹장들이었던 것이다.

항일의 맹장들 가운데는 정규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군사교육은 커닝 군인으로 뒤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들이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재능있는 군사지휘관으로, 능숙한 정치일군들로 자라났다.

혁명군대지휘관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항일투사 오종훈은 집이 너무 가난해 소학교나 겨우 나오고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유격대원이 된 사람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쓰신 것처럼 그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혁명가가 지녀야 할 당력과 용력을 키웠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인 7련대의 련대장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한물다 바쳐 투쟁하였으며 오늘날 인민군대내에서는 그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오종훈7련대최초정규훈련의 불길이 새차게 일고있다.

끝없이 유하고 끝없이 역센 사람이었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감회깊이 추억하신 항일투사 최춘국. 어릴적부터 남의 집 머슴을 산 그는 철도공사장에서 잔뼈가 굵어진 천덕꾸러기였다.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받은 날 그는 울상이 되어 자기가 어떻게 남들을 가르치는 정치지도원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하면서 자신있는 일은 그저 왜놈과 그 앞잡이들을 죽치는 일뿐이니 평대원으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였다고 한다. 바로 그러했던 그가 얼마후에는 온 남북민이 다 아는 당대의 이름난 항일맹장으로 되었다.

30살에 인민군대의 초대 총



참모장이었던 항일투사 강건도 16살에 혁명군에 입대한 사람이었다. 1948년말에 그가 쓰련(당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를 영접하기 위해 비행장에 나왔던 상대국의 대장, 원수급의 고위군사간부들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낯 놓고 기 속자도 몰랐던 까마득한, 어제의 머슴, 농사꾼들을 원수들을 전멸케 하는 항일맹장으로 되게 하였는가. 지난날의 까마득한 추억 푸르기를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속에서 투사로, 영웅으로, 선각자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으로 키워진 것은 다름 아닌 빨치산대장 김일성장군님이시었다. 명장 밑에 약삭이 없다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만고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을 알고 참된 삶의 길을 찾은 그들이었기에 항일의 나날 삼도매적을 벌벌 떨게 하는 맹장들로 자라나 조국해방이라는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아왔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명철한 전략전술을 앞장에서 받

들어 아메리카의 장군들을 뛰어넘어 패전장군으로 만들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 련합부대의 적후활동에 주목을 돌리던 한 자본주의나라 출판물은 이렇게 썼다. 『미군장성들은 상대방인 조선인민군 장군들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비범한 령도자에게 의하여 유격전의 은밀한 모험을 계속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장군들을 신악하다 그것도 자기의 총심 깊이에 놓아둔 채 비행기와 전차를 트럭으로 하늘과 큰길을 따라 북으로만 전진하였다.

때문에 그들의 전진은 공허한 전진이 되고 결국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600여 리의 퇴로중 그 어디에서도 머무루 수 없었다. 위커자신이 기본전선과 멀리 떨어진 38°선에서 다름 아닌 인민군주력부대의 유격전에 의해 죽사하지 않았는가...』 적후제2전선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방침에 따라 배후타격으로 적의 등뼈를 꺾어놓았으며 놈들의 손발을 엮어매어 인민군주력부대로 하여금 일거에 공화국북반부 지역을 해방하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 적

후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난 맹장인 최현이었다. 백두산 김대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빨치산출신 맹장들이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전략사상을 높이 받들고 능숙히 활용하는 기묘한 전법안에 적들은 얼마나 넋을 잃었던가. 정규전과 유격전,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의 리상적인 배합으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대연해방전투와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들까지 어느 나라의 병사에도 없던 것이었다. 간혹 그 어떤

렬한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항일투사 조정철, 미제침략자들을 락동강계선까지 몰아내는데 크게 공헌 하였으며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는 서울방어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적들의 발악적공세를 좌절시키고 전국을 전환시키는데서 커다란 위훈을 세운 항일투사 최광...

진정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나 사상도 뜻도 오직 령도자와 함께, 사고도 행동도 오직 령도자의 의도대로 인생의 순간순간을 빛내어 온 항일의 맹장들이 최후에도 중요한 초소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었기에 공화국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에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올 수 있었기이다.

오늘 공화국의 무장력은 세인을 경탄케 하는 강대무비한 힘의 실체들과 함께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슬하에서 령장의 비범특출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을 익힌 담차고 슬기로운 맹장들이 대부대를 이룬 명실공히 최강의 무장력으로 각광을 모으고있다.

무적강군의 위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장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신다면 항일의 맹장들처럼 직접 비행기와 땅크의 조종간, 함선의 조타를 틀어쥐고 반미대결전의 앞장에서 천만대오를 지휘해나갈 용맹무쌍한 룡해공군의 맹장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원수의 아성, 악의 제국에 영원한 종말을 선언할 불같은 의지를 안고 화성포들의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해가는 전략군의 맹장들의 위용찬 모습은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원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다.

령장의 슬하에서 맹장들의 대부대가 자란다. 천출맹장이 계시고 역센 자위의 힘을 갖춘 군대와 펄펄 나는 지휘관들인 맹장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공화국은 강하며 적대세력들이 이런 공화국을 잘못 보고 또다시 덤벼들었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손 지성

◎ 군력강화의 나날에 ◎

날 바다를 헤친 목선

주제101(2012)년 8월 어느날 신문을 펼쳐 들던 온 나라 인민은 속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은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7hp의 작은 목선을 타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 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찾으시었다는 보도가 전해졌기였다.

나라의 령도자께서 한층 바다에서 사는 배군들도 괴도사나운 날에는 선덕 띄우지 못하는 그런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서 검푸른 날바다길을 헤쳐가시나.

누구나 저러드는 마음을 달랠지 못하며 간절히 소원하였다. 이제 더는 그런 위험천

잘 짜인 협동작전으로

주제103(2014)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륭군, 해군, 항공 및 방항공군의 섬상륙전투훈련을 지도하시셨다.

훈련장은 지심깊이 뚫어버린 웅양이 터져오르는듯 활화산같이 노호했다. 강철포신들에서 련속 날아가는 시벨진 불출기들, 하늘을 썰며 급강하하는 비행대들과 물갈기를 세차게 날리며 돌진하는 해군함정들, 바다속을 헤가르는 잠수함에서 뿜어낸 증기와 복수의 명중탄들로 하여 하늘, 땅, 바다가 세차게 뒤흔들었다.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

몇해전 전승절을 맞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미사일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뜻깊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의 발사훈련에서도 화력타격부대의 전투력과 전술미사일의 전투적성능이 완벽함을으로 평가되었다.

발사 전 과정을 지도하시면서 귀중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주시려

우리 공화국을 시종일관 적대시하고 압살하려고 발광하는 미제와 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이어가는 공화국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하신 승리 선언이 길이 새겨져있다.

인민군대가 적들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즉시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가 남해바다에까지 승전고성을 울려가던 때인 주제39(1950)년 8월의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께서는 포성이 지척에서 들려오는 조국의 최남단 광주천가까지 나가시어 이런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하루빨리 미 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세상에 제1강대한 나라를 제1으로 반드시 일떠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전진길을 걷고 또 걷고있습니다. 나의 전진길은 곧 승리의 길입니다.》

이런 불같은 신념을 안으셨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께서는 적들이 군사기술적우세를 부러트으며 이 땅을 초토화하려고 발광할 때에도 주저없이 화산길에 나서시어 승리의 길을 명확히 밝혀주셨으니 바로 그 길에서 이 나라의 이름없는 과분용사들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자랑높은 승리산, 승리봉으로 이뻐뻐했다.

《사회의 오직 한길로》의 노래선율을 마음속으로 외우시며 위험천만한 시험판사장으로 야전차를 주저없이 몰아가시던 오늘의 천군명령보라길도 있었다.

바로 그 길우에서 온 세대가 경탄하고 적대세력들을 질겁케 하는 최후의 주체병기들의 비행운이 만리장공에 새겨졌고 한해를 십년, 백년맞잡아도 비약하는 건설신화, 력동과 변혁의 년대가 이 땅우에 펼쳐졌다.

위대한 아버지의 화산길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원의 대재앙과의 결전장에도 이어졌으니 태풍이 휩쓸는 수도의 거리를 몸소 운전대를 잡고 헤치시며 인민의 안녕을 지켜주시는 길, 위험천만한 립시철다리를 건너 아직 감탕이 채 가지지 않은 돌서덜 진창길도 주저없이 찾아 인민을 안아일으키신 사랑의 그 길, 언제 악성병마가 침습할지 모르는 약국까지 이어진 위민들의 불같은 령에서 이 나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만복이 펼쳐나고있다.

오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화산길에는 또 한분의 희세의 천출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정은 경애하는 그이의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되고 그이의 걸음걸음은 그대로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화산길로 이어져왔다.

그 령에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한물 방탄벽이 되었던 5일간도 있었고 일생일대의 내용단을 안으시고 떠나셔야 했던 화산길, 붉은 당원증을 품으시고 걸려나시던 가슴타드는 석별의 밤도 있었다.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의 노래선율을 마음속으로 외우시며 위험천만한 시험판사장으로 야전차를 주저없이 몰아가시던 오늘의 천군명령보라길도 있었다.

바로 그 길우에서 온 세대가 경탄하고 적대세력들을

질겁케 하는 최후의 주체병기들의 비행운이 만리장공에 새겨졌고 한해를 십년, 백년맞잡아도 비약하는 건설신화, 력동과 변혁의 년대가 이 땅우에 펼쳐졌다.

위대한 아버지의 화산길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원의 대재앙과의 결전장에도 이어졌으니 태풍이 휩쓸는 수도의 거리를 몸소 운전대를 잡고 헤치시며 인민의 안녕을 지켜주시는 길, 위험천만한 립시철다리를 건너 아직 감탕이 채 가지지 않은 돌서덜 진창길도 주저없이 찾아 인민을 안아일으키신 사랑의 그 길, 언제 악성병마가 침습할지 모르는 약국까지 이어진 위민들의 불같은 령에서 이 나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만복이 펼쳐나고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장을 누벼간 위용찬 열병총대들과 천만대적이 덤벼든대도 배심든드혜지게 하

는 주체병기들,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며 경국의 광장을 이채롭게 장식한 공화국인민들의 약동하는 그 모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에 의해 행성의 중심에 초대강군으로 우뚝 솟아오른 공화국의 진도습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말한다. 이 세상 그 어떤 격난, 그 어떤 풍파가 들이닥쳐도 두렵지 않다.

이 지구상의 제국주의때무리들이 다 덤벼들어도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위대한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다.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따라 새로운 승리와 번영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원 은 미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다

— 조선로동당의 정치철학을 되새겨보며 —

생명은 인간에게서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다 인간의 생명, 인민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인간중심, 인민사랑의 참다운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 * ***

공화국은 세계유일의 인간중심, 인간사랑의 대화원이다. 이 행성에서 공화국에서처럼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귀중히 여기는 나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나라는 없다.

인민의 생명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 것은 해당나라의 정치를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발생해 초기에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생명을 지키는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선제적이며 집단성 있는 강도 높은 차단봉쇄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세계도처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악성전염병에 걸려 죽어나가고 혈육과 친지가 생이 깨어날 때 울릴 때에 도착자들이 높은 악성비루스의 투입을 2년 3개월이나 막는 세계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런가 하

면 못하지 않게 악성비루스가 정내에 투입되었을 때에는 국가의 총력을 동원하여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최악의 보건위기를 평정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세계언론들이 이에 대해 세계적대재앙인 COVID-19 사태를 놓고 조선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던 유미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주시과 선거표, 화폐이라고 평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공화국에서는 자연의 평안으로부터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안전까지 지키기 위해 중요 당면의 과제들에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문제들을 의대해하였으며 피해지역 인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피해지역으로 급파되고는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생활조건을 돌봐주고 마련해주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도 인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하며 평양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때 대

한 문제가 중요과업으로 제시되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전투를 비롯하여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에서 건설에서 제일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공사실적을 내는 것보다 로동안전규율을 엄격히 세워 건설자들의 귀중한 생명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데 대한 문제이다.

이번에도 공화국에서는 예견되는 태풍과 큰물로부터 귀중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과 대책들을 다 취하였다.

인민의 생명을 제일 중대시하는 공화국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의 조치들이다.

인간중심, 인간사랑의 정치는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를 모실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오늘날 공화국이 사상최악의 역경속에서도 국가사업전반이 철두철미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인 김정은이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장 중시하시며 최대로 관심하시는 문제는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이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그의 드림없는 신조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나운 비바람, 눈바람을 다 막아주는 아버지의 손길로, 밤길도룩 자식의 요람을 지켜 잠 못드는 어머니의 실정보다 무한한 총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다. ...

오늘도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소식이 전해진 그날 황해남도 강령군의 한 주민이 이런 감격의 목소리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주고 있다.

《오늘 너무나 민기 어려운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방역대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고령속에서 심히 애통하셨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원수님께서만은 부디 안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까지 하루하루 마음 든든히 살아왔는데 그처럼 위중하게 애통하시면서도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찌 한 주민의 마음속으로만 하고야 마는 국가지도자는 많다. 그러나 목숨을 내내 사생결단의 희생정신으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령도자

원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그의 드림없는 신조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나운 비바람, 눈바람을 다 막아주는 아버지의 손길로, 밤길도룩 자식의 요람을 지켜 잠 못드는 어머니의 실정보다 무한한 총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다. ...

오늘도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소식이 전해진 그날 황해남도 강령군의 한 주민이 이런 감격의 목소리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주고 있다.

《오늘 너무나 민기 어려운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방역대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고령속에서 심히 애통하셨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원수님께서만은 부디 안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까지 하루하루 마음 든든히 살아왔는데 그처럼 위중하게 애통하시면서도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찌 한 주민의 마음속으로만 하고야 마는 국가지도자는 많다. 그러나 목숨을 내내 사생결단의 희생정신으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령도자

원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그의 드림없는 신조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나운 비바람, 눈바람을 다 막아주는 아버지의 손길로, 밤길도룩 자식의 요람을 지켜 잠 못드는 어머니의 실정보다 무한한 총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다. ...

오늘도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소식이 전해진 그날 황해남도 강령군의 한 주민이 이런 감격의 목소리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주고 있다.

《오늘 너무나 민기 어려운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방역대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고령속에서 심히 애통하셨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원수님께서만은 부디 안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까지 하루하루 마음 든든히 살아왔는데 그처럼 위중하게 애통하시면서도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찌 한 주민의 마음속으로만 하고야 마는 국가지도자는 많다. 그러나 목숨을 내내 사생결단의 희생정신으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령도자

원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그의 드림없는 신조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나운 비바람, 눈바람을 다 막아주는 아버지의 손길로, 밤길도룩 자식의 요람을 지켜 잠 못드는 어머니의 실정보다 무한한 총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다. ...

오늘도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소식이 전해진 그날 황해남도 강령군의 한 주민이 이런 감격의 목소리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주고 있다.

《오늘 너무나 민기 어려운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방역대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고령속에서 심히 애통하셨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원수님께서만은 부디 안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까지 하루하루 마음 든든히 살아왔는데 그처럼 위중하게 애통하시면서도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찌 한 주민의 마음속으로만 하고야 마는 국가지도자는 많다. 그러나 목숨을 내내 사생결단의 희생정신으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령도자

원수님께서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그의 드림없는 신조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나운 비바람, 눈바람을 다 막아주는 아버지의 손길로, 밤길도룩 자식의 요람을 지켜 잠 못드는 어머니의 실정보다 무한한 총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다. ...

오늘도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소식이 전해진 그날 황해남도 강령군의 한 주민이 이런 감격의 목소리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주고 있다.

《오늘 너무나 민기 어려운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방역대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고령속에서 심히 애통하셨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원수님께서만은 부디 안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까지 하루하루 마음 든든히 살아왔는데 그처럼 위중하게 애통하시면서도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찌 한 주민의 마음속으로만 하고야 마는 국가지도자는 많다. 그러나 목숨을 내내 사생결단의 희생정신으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령도자



명승지에 일떠선 인민의 휴양소

경성군 상온포리에는 예로부터 이름난 온포천과 함께 현대적인 정휴양시설들이 갖추어진 온포근로자휴양소가 있다.

휴양소에서는 전구에서 오는 로동자, 사무원, 농민들이 휴양의 한때를 보내곤 한다.

이곳 휴양소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었다. 해방직후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36(1947)년 9월 어느날 이른아침 경성군 상온포리를 찾으신다.

온포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강을 가로질러 만들어진 휴양소로 들어서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는 참 좋

은 곳이라고, 물이 맑고 공기가 시원할뿐 아니라 경지도 아주 아름답다고 하시었다.

허중다리밑으로는 구슬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에는 기묘한 바위들이 우뚝 우뚝 솟아있고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져 풍치는 정말 아름다웠다.

허중다리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리밑으로 흐르는 맑은 물을 바라보시며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강산이라고 일러오는데 경성은 금강산, 묘향산과 더불어 조선의 명승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감회깊은 어조로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나라가 해

방되면 금강산이나 경성과 같은 명승지들에 휴양소를 짓고 우리 인민들이 모두 휴양하게 하자고 하신다고 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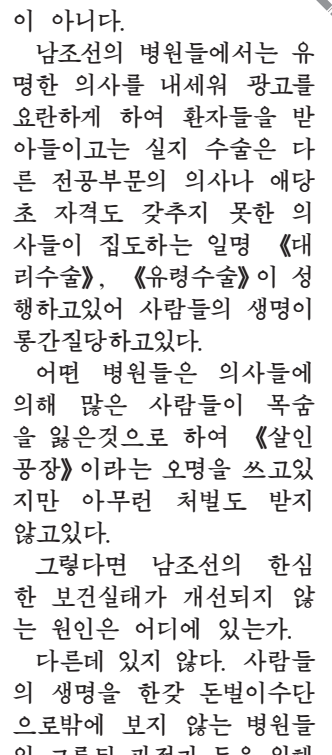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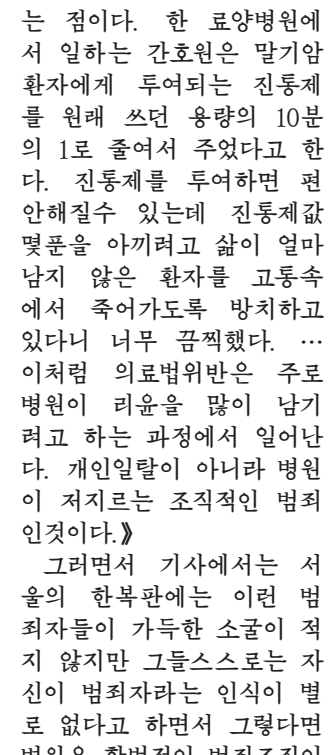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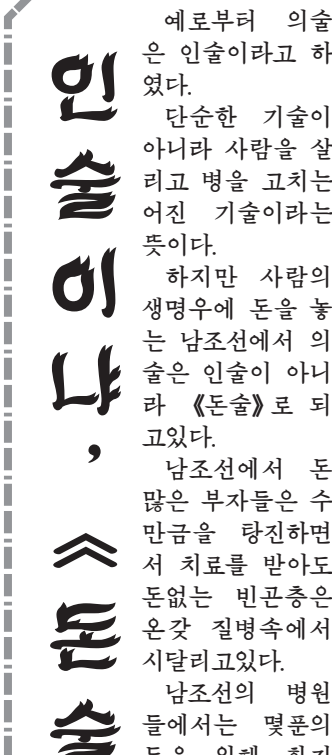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 짓어들었다.

나라를 찾기 위해 그 험난한 길을 걸으시면서도 일제의 발끝에서 신음하며 천대와 멸시속에 허덕이는 우리 인민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어 휴양소를 건설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과 숲이 어울려 더욱더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시며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는데 여기에 휴양소를 잘 지어 근로자들이 마음껏 즐기며 휴식

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고시하시었다.

경치의 아름다움에 찬해 있던 일군들은 다시금 가슴이 후련하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시면서도 먼



함께 웃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씨가정

아름다운 생활의 향기

보이었다.

이이 박영호는 남성을 앉힌 세바퀴차를 밀고 역으로 향하였다.

알고보니 몸이 불편한 남성은 영예군인이었는데 병원치료를 받고 오는 길이었다.

객차에 대한 기술검사중이라 더 지체할 수 없었던 박영호는 영예군인을 따뜻이 배려주고 열차로 돌아왔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영예군인의 이름과 함께 집주소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로부터 얼마후 그는 보약재들과 영양식품을 준비해 가지고 청진기 실험구역에 사는 영예군인의 집을 찾았다.

수년세월 한식술의 정을 나누는 영예군인과 박영호와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우리 가정수첩》

얼마전 온천군 금강농장의 제4작업반장인 리근주는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속에서 한 농장원을 찾았다.

검스레한 얼굴에 미소를 담은 작업반장은 그의 손에 꾸레미를 들려주며 오늘이 동무 어머니의 생일인데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싶다고 말하였다.

순간 젊은 농장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작업반의 대소사를 맡아보고 언젠가 배쁘게 뛰는 작업반장이 자기 어머니생일까지 기억하고있을 줄이야... 문득 작업반장이 늘 품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 떠올랐다.

작업반원속에서 《우리가정수첩》이라고 정답게 불러오는 작업반장의 수첩, 거기에는 작업반원들의 한식술로 여기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는 리근주작업반장의 진정이 뜨겁게 어려 있었다.

그가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농장원들을 위해 결은 발걸음이 가득하고 남모르게 바친 땀방울은 그 얼마였다.

작업반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기울이는 그의 노력이 있어 오늘 작업반은 모든 면에서 농장의 앞장에 선 단위로 자랑될치고있는 것이었다.

인정많은 작업반장의 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원의 가슴에 이음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들만이 차올랐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집단의 한 성원된 긍지감을 느끼며 농장원은 작업반장과 나란히 집으로 향하였다.

답사기간에 받은 생일상

청봉혁명전지직접답사속영소의 김장현소장은 하루사업을 끝마친 저녁이면 의례히 속영소에 든 답사생들의 명단을 펼쳐보곤 한다.

며칠전에도 그는 여느때와 같이 명단을 펼쳐들었다.

답사생들 가운데 다음날 생일을 맞게 되는 한 학생이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배현정학생이었다.

(집을 멀리 떠나 외지에서 생활을 하는 그에게 우리가 생일상을 차려주자.)

김장현소장은 졸업생들과 함께 서둘러 생일상을 차릴 준비를 하였다.

같이 온 답사생들에게 그의 식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답사기간에 맞는 생활을 뜻깊게 추억할 수 있게 기념품도 마련하였다. 졸업생들과 함께 밥을 새우기며 음식물을 마련하고 폭 빠진 것이 있을세라 마음쓰는 그의 모습은 친혈육과도 같았다.

다음날 아침 뜻밖에도 푸짐한 생일상과 축하의 꽃다발, 뜻깊은 기념품까지 받아안게 된 배현정학생은 물론 그의 학동무들도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본사기자 한 일 령

저 우리 인민을 생각하시었고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실 구상을 하시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이를 모시고 떠나가는 일군들의 귀가에는 금시 풍치 좋은 이곳에서 울려 퍼질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이것이 우리 인민을 생각하시었고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실 구상을 하시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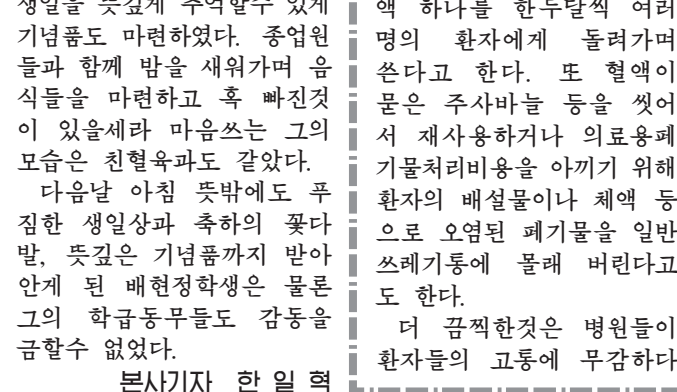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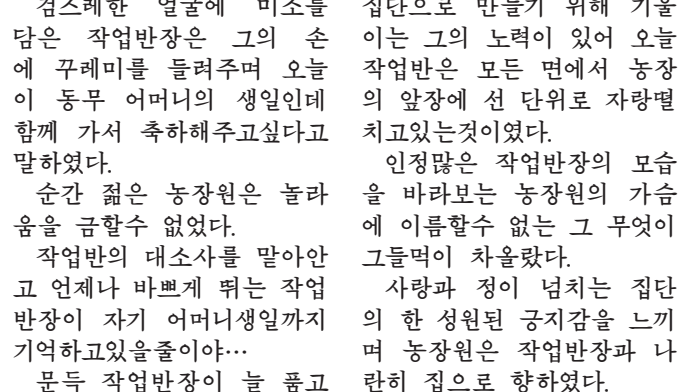
이윽고 그이를 모시고 떠나가는 일군들의 귀가에는 금시 풍치 좋은 이곳에서 울려 퍼질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이것이 우리 인민을 생각하시었고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실 구상을 하시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이를 모시고 떠나가는 일군들의 귀가에는 금시 풍치 좋은 이곳에서 울려 퍼질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수술실 환자가 의사를 못보게 하라

무지커져 대리수술 다른의사 유령수술 의사면허 영구박탈

수술실 CCTV 설치 환자안전 미사보호

수술실 환자안전 CCTV

《핵참화 불러오는 연합군사훈련 반대한다!》, 《미군 철수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최근 남조선에서는 반전, 반미, 반윤석열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8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비상시국회의, 《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8.15법국민대회》를 개최

한다고 한다. 《8.15법국민대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적패당이 미일과의 군사협력강화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규탄하면서 《주권과 평화를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미일남조선의 군사협력체제의 강화와 고강도연합군사훈련으로 조선반도는 세계의 화안고가 되었다고 하면서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위해 반윤석열, 반미투쟁에 각계층이 일떠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한편 지난 7일 부산에서는 《민주로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와 《8.15대학생 자주통일선봉대》, 《대학생진보연합 6기 통일대행진단》이 《전국민총행동 통일선봉대》공동발대식을 진행하였다.

대장은 《미국을 믿고 설치된 반민족적 윤석열(정권)에 균열을 내는 퇴진선봉대가 되자!》고 호소하였으며 《8.15대학생 자주통일선봉대》 공동대표는 《대학생이 앞장서서 기세를 실천으로 증명하자!》고 발언하였다.

민중행동 통일선봉대》는 《한미일전쟁연습 막아내자!》, 《친미친일 굴욕외교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자!》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격문에서 사대와 망령으로 가득찬 윤석열역도때문에 남

리, 대구, 평택을 비롯한 각지의 미군기지들 앞에서 《핵참화를 불러오는 연합군사훈련 반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격문에서 사대와 망령으로 가득찬 윤석열역도때문에 남

리 휘둘리고있고 민생은 파탄되었으며 《연합군사훈련 반대한다!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함성이 메아리치고 밝히면서 윤석열퇴진과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반대, 미군철수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얼마전 남조선 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가 《북의 다양한(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만일(적의 도발) 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현장에 일격에 응징하여 승리를 쫓아야 한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공화국의 초강력, 초강세에 전철한 대결광의 단말마적인 피성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도대체 세계최강의 핵보유국을 향해 불질을 하겠다는것이 대결에 환장한 미친자의 발광이 아니고 과연 무엇인가. 더욱이 미국의 총알받이,

대포밤에 불과한자들이 절대적힘을 비축한 상대를 어찌해볼것이라고 하는것이야말로 가마속의 삶은 소대가 리도 양천대소할 해괴한 추태이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 법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군사적대결책동에 의해 최악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자가 채친 호전적망발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광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데 대하여 쉽게 알수 있게 한다. 오판에 객기가 더해지면 자멸이 따른다.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오기를 부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불을 뿜는 총구앞에 나서는 가련한 자들이다.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수 없다.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낸 8.15는 민족재생과 자주독립의 길을 열어준 소중한 날이다. 그러나 8.15해방이후 남조선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명예가 미국식민지통치의 사슬로 바뀌었고 친일세력은 친미로 둔갑하여 오늘날까지 활개치며 여전히 매국배족을 일삼고있다. 윤석열역도도 일본분부성(당시) 장학금을 받아 히토쓰바시대학에서 류학하면서 일본을 절대적으로 숭배해온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런자이기에 보수패당의 《대통령》선거후보로 나섰을 때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방류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한

일관계악화는 일본사회의 우경화때문이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대일정책때문이다.》, 《국민을 친일, 반일로 갈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미일군사동맹도 가능하며 유사시 일본군이 조선반도에 들어올수도 있다.》는 친일매국발언들을 로골적으로 내뱉었던것이다. 윤석열역도의 친일망발이 얼마나 도수를 넘었으면 일본의 《니혼게이지》신문까지도 윤석열역도를 《남조선의 뿌리깊은 반일 대 친일의 이분법적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도전해나선 보수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추켜세웠겠는가. 갖은 음모적방법으로 간신히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윤석열역도는 《대통령》선거때 뇌까린 친일매국발언들을 그대로 실천해나갔다. 《대통령》버거지를 머리에 올려놓기 바쁘게 역도가 제일먼저 한 일이 친일파들로 구성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라는것을 씌나라에 보내어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청탁놀음을 벌렸것이다. 역도는 《지지률이 1%로 떨어진다》고 해도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겠다.》고 떠벌이며 일제강제정용피해자들에게 씌나라것들을 대신하여 저들이 보상금을 주겠다고 설쳐댔으며 남조선해군을 씌나라에 보내어 전범기인 《옥일기》에 경례하게 하는 비굴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올해 일본행각에서는 남조선과 일본은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꿰쳐며 일제의 피비린 과거죄악을 백지화하는 친화적정절을 하였으며 일본수상의 남조선행각때에는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해결력을 한발자국도 내디딜수 없다는 인식에

서 벗어나야 한다.》고 떠벌이며 씌나라것들과 입을 맞추며 돌아갔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의 친년속적인 씌나라것들을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 침략자가 아닌 《협력동반자》라고 개어올리고 일제에게 아무굴종한 친일역적들을 《애국자》로 내세우는 쓸개빠진짓도 거저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역도의 광적인 친일굴종행위로 하여 씌나라것들은 《옥일기》를 친연스레 날리며 남조선에 재침의 발을 들여놓고있는가 하면 우리 민

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며 로골적으로 독도강탈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역도를 가리켜 《제2의 리만용》, 《현대판매국노》, 《윤재앙》, 《리명박과 전두환, 로태우를 합친것보다 더 나쁜놈》, 《일본의 간첩》이라고 지탄하고있는것은 용당하다. 친미사대매국에 환장이 되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아 못해 친년속적 씌나라것들에게까지 아무굴종하며 매국배족을 일삼는 윤석열역도야말로 민족의 피와 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친화적, 가장 추악한 반역자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안팎으로 일색인 친일매국노

씩은 정치가 빚어낸 죽음의 사회

각종 사고와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남조선에서 최근 덮어놓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도 류행처럼 잇달고있다. 지난 8월 3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의 어느한 백화점 앞 인도도로에 난데없이 승용차가 뛰어들었다. 5명을 끌어트린 그 차에서 내린 청년이 백화점으로 들어

가 무차별적으로 흥기를 휘둘러 14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고 한다. 극도의 인간중오상이 만연되고 살인과 폭행이 일상사로 되고있는 씌어빠진 남조선사회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범죄사건이다. 아무런 리유없이 사람을 무력대고 폭행하고 지어 살해하는 범죄행위는 남조선에

서 해마다 수십건씩 발생하고있다. 지난 4월에도 부산에서는 50대남성이 여자위생실에 들어가서는 60대녀성을 무력대고 폭행하여 갈비뼈와 코뼈를 꺾어놓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6월말에는 TV를 보다가 살인충동을 느낀 20대의 한 녀성이 알지도 못하는 같은도

래 녀성의 집에 찾아가 그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태연하게 시체를 트렁크에 넣어 내다버린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7월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30대의 남성이 걸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흥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인터네트에 《살인예고》 글이 수없이 오르고있으며 이러한 글을 올리는자들중에는 10대의 청소년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오늘 7시에 재송역주변에서 사람들 다 죽일겁니다. 경찰도 그냥 죽일겁니다. 저를 막을순 없을겁니다.》 이 글은 얼마전 어느한 녀성이 인터네트에 올린 글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사회가 《폭력무법시대》로 전락되었다고 개

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남조선에서 그칠새없이 벌어지는 살인범죄의 근원은 약육강식, 황금만능, 인간중오의 법칙이 지배하는 씌고 병든 사회제도에 있다. 너를 딛고 올라서야 내가 살수 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인간혐오, 인간중오가 사회에 만연되어 각종 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